

**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직설채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처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제
- 우리 무인회의 지역화대를 위해 생산가 보라(영산차 소비촉진기)

0595183-9665 / 83-3478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초중고리로 내릴때는 연명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김진민 /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계는 위대한 빛사공으로서,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너준다. (미라송기울)

**법회 안내**

무진법장사 (02)932-2333

요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지역법회 매주 목-금 오후2시  
거사법회 매월 첫째 목 오후4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4시  
학원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창원 안국사 (055)36-8440

초하법회 매월 1일(음)  
보현법회 매월 15일(음)  
요요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6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외선사 (0364)481-3694

초하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요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람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전 영선사 (042)523-0813

거사법회 매월 첫째 일 오후8시  
대불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승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평택 영법사 (0333)3655-3215

거사법회 1-3주 일 오전10시  
합창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양 보광사(0667)763-1192

보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중고승법회 매주 토 오후4시  
보천포교원(0684)3634-6788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중고승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164**

우편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법공양반 발행**

특별요리 4면

## 단풍객 滿山... 포교 空山

안내판으로 '부처님 전하기' 역부족... 대책 절실

회사원 K씨는 지난 3일 개천 절 휴일에 가족들과 강원도로 단풍놀이를 갔다.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의 교통 혼잡을 예상하면서도 불과 단풍을 본다는 기쁨에 K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산을 향했다. 이제 막 붉게 치장한 산빛의 아름다움과 북적이는 단풍



철리는 '정화 40년' 지난 57년 8월 불교정화를 기념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 세워진 정화회관이 지난 5일 철렸다. 조계사는 이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법당인 '통일기원 민본보전'을 신축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 많이 몰릴 때 장안내를 찬란 이라도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0월이 되면서 주말과 휴일 한국의 산사에 단풍객이 몰려 들고 있다. 유명산 계곡과 사찰에는 적게는 몇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단풍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그 많은 인파를 향

한 사찰측의 포교의지는 간 곳이 없다. 문화재나 사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탑등에는 안내판이 서 있으나 이같이 외래적인 사찰은 포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풀려드는 수백만 단풍객을 위한 사찰측의 각별한 포교전략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찰과 불교를 알리는 전단의 배포나 학생·청년회 회원들 동원한 사찰 및 길 안내·자연보호 캠페인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애마다 거론되는 단풍객을 향한 포교대책이 그때마다 불발로 끝나는 것은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란 뼈아픈 지적이 울려도 여지없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 유명 관광 사찰은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를 '포교특별기간'으로 설정 각종 문화행사와 특별법회등을 기획, 단풍객들의 눈과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관공사찰의 노력뿐 아니라 포교원과 종단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연태 기자)

## "종토·토초세 면제 즉각 이행을"

조계종 본사주의회의, 전국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은 지난 5일 주지회의를 갖고 △경부고속도로 경주통과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문화유적을 피해 노선을 우회 △토초세와 종토세 면제조치 즉각이행 △공공임장료와 문화대 관방료 분리 징수 반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권여당과 정부당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토세 면제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전국 분당 사 스님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사찰등급제도 시행 △종무지도 감사 및 재정상태 파악 △사찰신도회 구성 등의 안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본사 주지들은 사찰등급제도가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사찰 신도회 구성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신도회 구성을 빠른 시일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담금·관방료 사찰 재정유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재정상태를 파악하며 중무지도 감사도 병행 실시한다.

**본사 사명**

위 영 란  
총 편집국 취재부장  
고 영 배  
총 편집국 사진기자 (9월 28일자)  
오 종 욱  
총 조시지료부 기자 (10월 9일자)  
박재환 사진기자  
의원면적 (9월 15일자)

## 현대불교 창간 1주년 2대기획

기획 1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 애독자 사은 연속 법회"



**대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

현대불교신도는 창간 1주년을 맞아 그간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습니다. 종요의 계찰에 큰스님들의 사자후로 마음의 가난을 벗어던지는 친견 법회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차 영축총림 통도사 10월 14일(토) 월하 방장스님 친견  
△ 2차 해인총림 해인사 10월 28일(토) 해암 방장스님 친견  
△ 3차 덕숭총림 수덕사 11월 4일(토) 원달 방장스님 친견  
△ 4차 조계총림 송광사 11월 18일(토) 승찬 방장스님 친견

● 각 회차별 당일코스이며 오전 7시 조계사 정문앞에서 출발합니다.

**동참방법·접수안내**

△ 개인·단체등참 가능하며 대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제일은행 계좌(131-10-000570)로 동참금 2만원을 입금하시고 수미산여행사 국내 사업부(732-0181~3)로 연락주시면 좌석 이 배정, 접수마감은 해당일 3일전.  
△학방 '여사신문(737-0696)'에서도 접수받으며 현대불교 편집국(722-4162)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 지방 불자들은 당일 오후 1시까지 해당 총림 대응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가비 1만원).

##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11월25일 마감

이시대 불자들의 바뀐 신앙지표를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귀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진한 상풍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하셔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수기 공모 요강**

△ 공모내용: 생활속 수행이야기·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300내외

△ 접수마감: 95년 11월 25일  
△ 접수처: 서울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722-4162 팩스: 737-0698  
△ 참가대상: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 95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 메달)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본사 사장상: 상장, 상금  
·특별상: 상장, 상품  
·응모지원원: 기념품 증정

HALI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33** 1962-1995 創立 33周年

# 地球를 사랑하고 아끼시다

地域環境에 대한 責任을 遂行하는 企業, 漢擊가 올해로 創立 33周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地球를 보다 맑고, 보다 푸르고, 보다 깨끗하게 가꾸어서 우리 後孫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귀여운 後孫들만은 神이 創始하신 참모습 그대로의 大自然을 享有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環境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삼고 있는 漢擊는 人間의 부분별한 行爲로 모든 分野에서 각종 廢棄物과 有物質이 마구 放出되거나 自然이 毀滅되어 무참하게 破壞되어가는 이 地球環境을 保護하는 일에 最新 技術과 온갖 精誠을 다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漢擊가 기울이고 있는 보다 快適한 未來社會 建設事業에 同參하십시오.

**HALIA 漢擊**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안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칼코 · 마이스터 · 한라마케팅정보통신 · 한라제지 · 배달학원